

2019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9.04.05. (금) 09:00~10:55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3명 중 13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주창윤(의장), 성혜경, 조정환, 이도희, 송미경
 - 나. 직원대표 : 이계원, 김홍석
 - 다. 학생대표 : 서윤정, 김현정
 - 라. 동 문 : 박에스더, 박희옥
 - 마. 외 부 : 장유식(부의장), 손인웅
4. 불참자 : 없음
5. 자문안건: 2018학년도 자금 결산(안)

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주창윤 교수
- 부의장: 장유식 변호사

2. 보고 사항

경영기획팀장이 2018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의견에 대한 법인사무국의 답변사항을 설명하다.

○ 법인의 '정의사랑 1만명 후원자 캠페인', '학교법인 정의학원 홍보전략', '학교법인 수익사업 확대 및 운영방안'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4년간 20억원 모금 목표 중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및 학부모, 총동문회 등 구성원 대상 모금 목표 10억원이라는 것은 구성원을 통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법인이 추진한 사업의 성과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대학평의위원회와 자세히 공유하고 법인과 학교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법인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간서명> 의 장



○ 대학로캠퍼스 건물은 교육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교수·학생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관리비용이 점점 부담이 되므로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 매각 및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3. 자문 안건

○ 등록금 수입이 언제까지 줄어드는가.

○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이하 특전대)에 이번 학기 신입생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등록금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특전대에 줄어드는 인원만큼 일반대학원에 학생수가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내년 등록금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등록금 수입 중 단기수강료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단기수강료 수입에 기존에는 SWELL 수강료가 있었는데 SWELL이 기초교육원 산하로 이동하였고, 평생교육원 등의 수강인원 감소 추세로 인해 수강료 수입이 감소하였다. 미래교육단의 규모가 축소하였으므로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같이 보아야 하며 적자 폭이 감소했다고 보아야 한다.

○ 전입금 수입 중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이 있는데, 법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

- 법인 운영비는 법인 내에서 해결하고 학교에 전출하는 금액은 이와 별도이다. 전입금 수입을 보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2주기 대학 평가를 앞두고 법인 역량 및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결과이다. 법인의 역량보다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며 보고사항으로 확인한 것과 같이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니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학교의 노력을 볼 수 있다.

○ 학생지원비가 많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17학년도에 ACE사업이 종료되어 그동안 ACE사업의 국고보조 지원금이 없어지면서 학생지원비가 감소한 것이다.

○ 적립한 기금은 한계가 있고 기금 인출을 못 하면 학교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 3년간 비교한 자료는 추이를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단, 3년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금과 관련된 부분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10년 등 장기간의 비교자료를 정리하여 장기 지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경우 향후에는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건축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

- 장기 추세에 대하여 작년도에 몇 차례 구성원에게 발표하였으며 예측치까지 제시한 바 있다. 단순 산술 평균하면 특정목적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3년에서 5년 등 매우 가까운 미래일 것이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행정구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사구조도 개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사구조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

<간서명> 의 장

3 31 2

단하고 있다.

○ 작년 특전대 폐지 등 학교에 이슈가 있을 때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였다.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 전체가 공감해야 하는 주제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 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약 30억 원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중 약 14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에 국고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다.

○ 학교 재정이 어려운데 현재 시점이 과연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점인가.

-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1989년에 지어져 다른 학교 도서관과 비교해 노후화가 심하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SWU2030 중장기발전계획의 학습공간혁신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이미 설명회와 공론화특별위원회 등 구성원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이전 국고사업에서는 건물이나 공간혁신에 투자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공간의 혁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이 국고를 활용한 도서관 리모델링의 좋은 기회로 보인다.

- 학교 재정이 심각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투자해야 할 부분은 투자해야 하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도 그러한 부분으로 보인다.

- 올해 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구성원을 설득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급여를 실질임금으로 계산하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다른 대학교도 그런가.

- 타 대학은 임금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호봉을 동결하는 대학도 간혹

<간서명> 의 장

3 30 3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타 대학의 법인 상황은 우리 학교보다 양호하다.

－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원과 반드시 소통하고 반대에 대하여 설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임금 부분은 학교 전체의 관리 경영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을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법인이 책임을 느낄 것이다.

－ 우리 학교가 임금을 동결하였지만 호봉은 승급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상승하고 있다.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총 지출액 중 보수액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

－ 임금은 법률적으로 구성원의 허락 없이 삭감할 수 없다. 호봉을 동결하고자 한다면 구성원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학교의 상황과 입장을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진행하기를 바라며 호봉 동결은 없기를 바란다.

4.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19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다.

5.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행정구조 효율화 관련 학칙 개정(안) 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2019년 6~7월 경으로 예정하다.

의장이 10시 55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의 장



2019년 4월 5일

의 장	주 창 윤	(서명) 주창윤
부 의 장	장 유 식	(서명) 장유식
평 의 원	성 혜 경	(서명) 성혜경
평 의 원	조 정 환	(서명) 조정환
평 의 원	이 도 희	(서명) 이도희
평 의 원	송 미 경	(서명) 송미경
평 의 원	이 계 원	(서명) 이계원
평 의 원	김 홍 석	(서명) 김홍석
평 의 원	서 윤 정	(서명) 서윤정
평 의 원	김 현 정	(서명) 김현정
평 의 원	박 에 스 더	(서명) 박에스더
평 의 원	박 회 욱	(서명) 박회욱
평 의 원	손 인 응	(서명) 손인응
간 사	하 성 호	(서명) 하성호